

폭염에 아서 살려냈는데...썩대밭 된 하우스에 망연자실

수해 피해 나누·함평 농가 현장 가보니

전남 최소 12개 오리 농가 피해
함평서만 오리 2만8000마리 폐사

감초 하우스 죄다 물에 잠겨
작물보험 적용도 안돼 한숨

20ha 논콩 하루아침에 사라져
방울토마토 최소 100억원 손실



20일 이랑기(왼쪽)씨와 김태완·김단아씨가 나누시 동강면의 하우스에서 수해를 입은 방울 토마토와 감초를 허망하게 바라보고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전남 농민들이 폭염 속에서 농축산물을 지키기 위해 사투해 온 것이 무색하게 '도깨비 폭우'로 농작물과 가축 등을 잃는 처지에 놓였다.

20일 나누, 함평 등 전남 곳곳의 농가는 하룻밤 사이 축사와 하우스, 논밭 등이 침수되면서 가축과 작물이 전멸한 상태였다.

◇폭염에 애지중지 키웠는데=함평군에서 2만 8000마리의 오리를 키우는 박서군(69)씨는 부화한 지 7일도 되지 않은 병아리들을 폭우로 모두 잃었다. 최근 폭염이 이어지자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 가며 애지중지 키웠던 오리들인 터라 박씨의 상실감은 더욱 컸다.

박씨는 "오리 새끼값이 다하면 2600만원이다. 지난 11일에 태어난 애들인데 동 옮겨주자마자 죽었다"며 "사료를 1500만원어치도 다 부어냈는데 물에 빗물이 차버려서 나중에 쓰지도 못하고 버려야 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한국오리협회 광주전남지회에 따르면 이번 장맛비로 나누 6개, 함평 4개, 무안 1개, 광주 1개 등 최소 12농가가 침수로 피해를 입었다. 아직 피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거나 자체 복구 중인 농가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분석이다.

피해 농가 대부분은 저지대에 위치한 곳으로 일부 농가는 전체 계사가 침수됐고, 상당수는 30~70% 수준의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영옥 광주전남오리협회장은 "올해는 더위가 유독 빨리와서 다들 열심히 살려냈는데 이제는 물에 휩쓸려가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며 "농가들이 그동안 폭염을 견디며 하느라 지붕에 물 울리고, 내부에 안개도 분무하고, 팬도 열심히 돌려서 겨우겨우 살려놓은 애들인데 결국 물 차서 다 죽었으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말했다.

◇소득 작물로 기껏 바꿨는데=영암군 군서면에서 논콩을 키우는 김지흥(70)씨는 이날 폭염에도 열심히 물 대가며 키워낸 논콩이 하루 아침에 물에 잠겨버린 것을 보고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17일 영암군에 내린 폭우로 논 전체가 물에 잠기면서 콩이 모조리 죽어버린 것이다.

김씨는 정부와 행정기관의 권장에 따라 논콩 재배 면적을 지난해 10ha에서 올해 20ha로 두 배 이상 늘렸다. 주변 농가도 김씨의 설득에 따라 논콩

재배 면적을 늘렸는데, 이웃집 논콩까지 모조리 물에 휩쓸려갔으니 이웃들을 볼 면목도 없다는 것이 김씨 설명이다.

김씨는 "수두작(벼)은 잠졌다가 물이 빠지면 피해가 크지 않지만 콩은 물에 잠기면 거의 전멸한다"며 "이번 피해로 1억원이 넘는 손실이 예상된다. 이번처럼 큰 피해가 반복된다면 앞으로 누가 논콩을 재배하려 하겠느냐"고 말끝을 흐렸다.

◇감초 재배로 차별화 높였는데=나주시 동강면에서 감초 하우스를 운영하는 김태완(60)·김단아(여·28)씨 부녀는 지난 19일 폭우에 수해 직격탄을 맞았다. 6개월 넘게 정성 들인 감초와 스마트팜 시설이 완전히 침수돼 전면 폐기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들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원강' 품종을 전국 최초로 조식배양에 성공해 국산 감초산업에 도전했지만 허사가 됐다. 시설비 5억여 원에 모종값만 1억여 원, 농약·양액비 등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감초는 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보상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아씨는 "다른 작물만큼이라도 피해 보장을 해주면 소원이 없겠다"며 "청년 창업농으로 국산 감초 산업에 도전했지만 반복되는 재해와 허술한 제도적 지원에 정말 큰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이번 폭우로 생계를 위협받는 처지에 놓였다고 입을 모았다.

◇폭염에도 토마토 상품성 힘써왔는데=나주시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이랑기(58)씨는 "하우스 13동이 모두 물에 잠겨 최소 80억~100억원 손실을 봤다"며 "겨우 폭염을 버티고 살려냈는데 보험금 나오기까지 1년 가까이 버티기도 불가능하다"고 한탄했다.

인근에서 딸기, 오이, 애호박을 재배하는 정흥석(53)씨도 "폭염으로 하우스 내 평균 온도가 계속 오르면 작물의 생장점이 타격을 받아 결국 판매할 수 있는 작물량이 크게 줄어 수입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다"며 "최근 몇 년 사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훨씬 심해지면서 매년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데 수해까지 입으니 어떻게 농사를 지으란 말인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함평·나주=김진아·서민경 기자 jinggi@

신안동 주민들 "침수 예방 투명방수막이 피해 키웠다"

"물길 흐름 막으면서"

신안교 일대 주택·상점가 덮쳐

'극한 호우'로 광주시 북구 신안동 신안교부터 전남대 정문, 전남대 후문 등 신안동·용봉동 일대가 통째로 침수되자 침수 원인에 대한 설명설레고 오가고 있다.

특히 신안동 주민들이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의 '침수예방 투명방수막'으로 되레 침수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20일 김상진(60)씨를 비롯한 신안동 주민들은 "3년 전 신안동 아델리움 아파트에서 주차장 물난리가 났을 때도 이곳 일대가 침수되지는 않았는데, 2년 전 방수막을 설치하면서 도롯가까지 온통 물에 잠겼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은 광주시종합건설본부가 지난 2019년

부터 2023년까지 신안동 신안교부터 임동 광주천 합류부까지 1.14km 구간에 서방천 개수공사를 진행하면서 침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식생옹벽을 쌓고 일부 구간에 1.5m 높이의 투명옹수방어벽을 세운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애초 하천에서 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방수벽이었지만, 오히려 마을에 찬 물이 방수벽에 막혀 하천으로 넘어가지도 못하면서 침수 피해가 심해졌다는 주장이다. 기상청·경신여고 사거리, 아델리움 아파트, 신안교 쪽에서 내려온 물을 하천으로 보내지 못하고 서암대로 100번길 마을에 물이 고여 도로를 거대한 강처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비가 소강상태일 때 하천 수위가 2m 내려갈 때까지 마을에 갇힌 물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며 "이 때문에 도롯가에 있던 스타벅스가 침수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주민들은 또 수문이 5개밖에 없고 폭이 좁아 타이어라도 끼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부실한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하루에 쏟아지는 비로 영산강 수위가 올라가고 광주천 수위가 올라갔고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서방천 수위도 함께 올라간 것으로, 방수벽과 연관성은 단정하기 어렵다"며 "방수벽보다는 철도 교각의 단면이 커서 하천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은 "신안동 일대는 물이 과거부터 잘 모이는 곳으로, 방수벽뿐 아니라 해당 지역 일대의 배수 시설과 체계 등을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하수관로 등 물빠짐, 물을 모을 수 있는 저류지 등을 만드는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장관 지시로 혐의자 2명만"...채해병 특검 외압 의혹 폭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소장)이 해병대 수사단에 이어 국방부조사본부에도 채해병 수사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와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에 따르면 순직해병특검은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이 2023년 8월 채해병 사망 사건을 재검토하던 국방부조사본부 영관급 장교 A씨와 대화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최근 확보했다.

2023년 7월 19일 채해병 사망 직후 초동 조사에 착수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해 경찰에 이첩했는데, 군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이 항명했다면서 사건 기록을 다시 회수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그해 8월 11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사건 재검토에 들어갔고, 8월 14일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혐의자를 6명으로 판단한 중간 보고서를 만들어 국방부에 검토를 요청했다.

녹취록에 담긴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A 씨와의 대화는 국방부조사본부가 해당 중간보고서를 만들어 국방부에 보낸 8월 14일 전후로 알려졌다. 녹취록에는 박 전 보좌관이 A 씨에게 '장관의 지시'를 거론하면서 혐의자를 줄이라고 압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보좌관이 "(상부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되냐"고 묻자 A 씨는 "장관의 지시냐"고 반문했고, 박 전 보좌관은 "장관의 지시가 맞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보좌관은 "혐의자를 6명으로 했는데, 2명만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말하는 등 구체적인 혐의자 수까지 언급하면서 혐의자를 축소해달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국방부조사본부는 임성근 전 사단장 등 6명이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거두고, 대대장 2명만을 혐의자로 적시해 8월 21일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종적으로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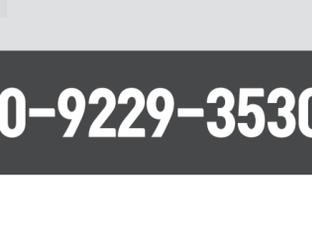
특검팀은 조만간 박 전 보좌관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군법집사령부 동향 보고 문건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D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